

사계절 무더위와 한창적인 폭염으로 상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봉 (당갈동출발)IC 영수순 코스(제기)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neasy.co.kr 0801 320-7700



19일 베이징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중국과의 여자 핸드볼 8강전에서 오성욱(왼쪽)이 중국의 수비수를 뚫고 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저미손’ 오영란 슈팅 17개 선방

## ‘금빛 우생순’ 두 고비 남았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한국, 中에 31-23 승리



핸드볼

여자핸드볼대표팀이 중국을 무찌르고 2008 베이징올림픽 준결승에 진출, ‘금빛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가까이 다가갔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9일 오후 베이징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펼쳐진 여자핸드볼 준준결승에서 중국을 31-23으로 이겼다.

한국은 이로써 스웨덴을 31-24로 꺾고 4강에 오른 북유럽의 강호 노르웨이와 21일 저녁 7시(한국시간)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역대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상대 전적에서 3승2무1패로 확실한 우위를 이어나갔다. 아시아게임이나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게임까지 모두 합하면 19승2무2패로 압도적이다. 초반에 승기를 잡으려 한 한국은 강하게 밀어붙였다. 문필희(백산건설)의 돌파 슈팅으로 첫 득점에 성공한 한국은 전반 8분 3-2에서 오성욱(히포뱅크)과 박정희(백산

건설)가 3골을 몰아치며 6-2, 4점 차로 달아났지만 중국은 금빛 6-4로 추격해왔다. 한국은 13분부터 허순영(오르후스)과 문필희가 다시 3골을 합작해 9-4로 더 벌렸고, 24분에는 허순영의 가로채기에 이은 문필희의 속공으로 14-8, 6점 차까지 우세를 점했다. 그러나 후반 25분 박정희(백산건설)가 2분 퇴장으로 벤치로 물러난 데다 막판 최임정(오르후스)의 패스 미스에 문필희의 외곽 슈팅마저 중국 골키퍼에 막히면서 15-12, 3점 차로 쏠렸다.

한국은 후반 10분 오성욱이 기습적인 외곽 제자리 슈팅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자 박정희와 문필희가 2골씩을 몰아치며 23-16, 7점 차로 순식간에 달아났다.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완전히 돌아오자 이번에는 확실한 점수 벌리기를 시작했다. 후반 17분 23-18에서 한국은 문필희의 외곽포를 시작으로 안정화(대구시청)와 박정희가 돌파에 속공까지 5골을 더 몰아나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다.

이날 승리의 숨은 공신은 주장인 철벽 수문장 오영란(백산건설)이었다. 오영란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방을 펼쳐며 중국을 주저앉혔다. 오영란이 이날 막아낸 상대 슈팅은 무려 17개였다.



## 이신바예바 24번째 세계新



육상

‘미녀새’ 엘레나 이신바예바(26·러시아·사진)가 베이징 올림픽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통산 24번째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이신바예바는 지난 18일 베이징 귀저티위장(國家體育場)에서 벌어진 결승에서 5

m5cm를 넘어 지난달 말 작성한 5m4cm를 1cm 경신하면서 2004 아테네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정상을 밟았다. 두 차례 신기록 도전에서 다리가 바에 걸리는 바람에 아깝게 기록 경신에 실패한 이신바예바는 9만1천명의 관중이 때리는 박수에 온 몸을 맡긴 마지막 3차 시도에서 힘차게 하늘로 솟구쳐 마침내 바를 넘었다.



19일 베이징 우커스스포츠센터 야구장에서 열린 올림픽 야구에서 쿠바에 7-4로 승리한 한국 대표팀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 향한 기세... ‘세계 최강’ 꺾었다



야구

한국 윤석민·오승환 ‘황금 계투’...7-4 승

1999년 이후 9년만에 ‘쿠바 징크스’ 털어

베이징올림픽 본선 풀리그에서 강적들을 모조리 꺾고 1위로 준결승 토너먼트에 오른 한국 야구대표팀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대표팀은 13일 가장 난적으로 붙었던 미국을 8-7로 격파한 데 이어 16일 일본(5-3)도 눌렀고 19일에는 아마추어 야구 최강 쿠바마저 7-4로 넘어섰다. 메달을 따기 위해 반드시 제압해야 할 세 팀을 풀리그에서 모두 꺾으면서 선수들은 4강 토너먼트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한국과 쿠바가 각각 1, 2위를 확정했고 3승2패로 동률인 미국과 일본이 3, 4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22일 1-4위, 2-3위가 격돌하는 준결승 토너먼트 대진은 20일 미국-일본 경기 후 결정된다.

한국이 성인 국제대회에서 쿠바를 꺾은 것은 1999년 제14회 대륙간컵 대회 예선(한국 4-3승) 이래 9년 만이다. 2000

년 시드니대회 동메달에 이어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앞에 세계 최강 쿠바도 무릎을 꿇었다.

초반 기세는 쿠바가 좋았다. 쿠바는 2회초 프레데릭 세페타의 볼넷과 알렉세이 벨의 2루타로 2, 3루를 만든 뒤 아리엘 페스타노와 히오르헤스 두베르겔의 좌전 적시타로 합틀이 지 않고 3점을 뽑았다.

한국은 3회까지 사사구 2개를 얻어냈을 뿐 안타는 한 개도 치지 못한 채 0-3으로 끌려갔다.

역전 포문을 연 건 4회 말 김현수였다. 선두타자로 나온 김현수가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치고 나가자 쿠바 두 번째 투수 비초안드리 오델린은 이대호와 이진영을 연속 볼넷으로 내보내며 흔들렸다.

이대근이 2루수 플라이로 물러나며 기회가 무산되는가 했지만 2사 만루에서 강민호의 1타점 좌전 적시타와 고영민의 2타점 우전 적시타로 3-3 동점을 만들었고, 바뀐 투수 곤살

레스 노베르토는 이용규의 번트 타구를 잡은 뒤 1루에 악송 구해 강민호와 고영민마저 홈을 밟아 5-3으로 경기를 뒤집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6회 2사후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간 고영민이 2루를 홈친 데 이어 포수 견제구가 뒤로 빠진 사이에 3루를 밟았다가 이용규의 좌전 적시타 때 홈을 밟아 6-3으로 달아났다.

쿠바는 8회 초 알렉산더 마에타의 2루타에 이어 프레데릭 세페타의 우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지만 윤석민-오승환으로 이어진 한국 불펜조의 구위에 눌려 역전패를 당했다.

한국 선발 송승준은 6과 3분의 2이닝을 3안타, 3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고, 오승환이 국제대회 세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대표팀은 미국과 일본, 어느 팀이 올라오더라도 해볼 만하다는 기세다. 하일성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 “상대가 미국이라면 류현진(21·한화), 일본이라면 김광현(20·SK)이 선발투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둘 모두 충분히 쉬웠기에 준결승 토너먼트에서도 좋은 내용을 보여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허규연 MBC 해설위원은 “현재 대표팀 멤버가 상당히 좋다. 충분히 금메달을 노릴 만할 전력”이라면서 “준결승에서 까다로운 일본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 차라리 미국이 낫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김현수·윤석민▶

## 젊은 그들 있음에 한국야구 신바람

김현수 쿠바전 2루타 2개 장타 과시

윤석민 홀드 추가...확실한 ‘믿을맨’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김현수와 고영민이 과감한 타격을 이어가며 팀 연속 행진을 이끌고 있다. 프로야구 최다안타 1위를 달리고 있는 김현수는 19일 베이징 우커스야구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야구 본선 풀리그 6차전 쿠바와 경기에서 3번 타자로 나와 2루타 2개로 장타력을 뽐냈다.

0-3으로 뒤진 4회말 선두 타자로 나온 김현수는 쿠바의 두 번째 투수 비초안드리 오델린을 상대로 우중간을 가르는 급지막한 2루타로 대량득점의 물꼬를 텄다. 5회에도 쿠바와 좌완 사이드암 투수 노베르토 곤살레스의 바깥쪽 공을 결대로 밀어 3루수 옆을 빠져나가는 총알타구로 2루를 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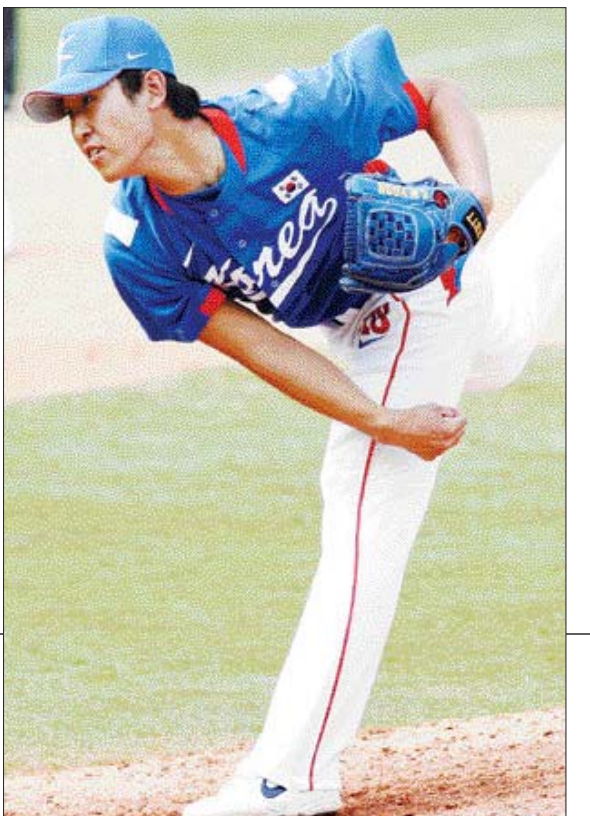
폭넓은 수비로 ‘2외수’로 통하는 고영민도 안정된 수비와 알토란 같은 타격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 고영민은 이날 1-3으로 뒤지던 4회 2사 만루에서 볼 카운트 1-3에

서 과감하게 방망이를 휘둘러 2타점 동점 적시타를 날렸다. 고영민은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도 원하는 공이 들어오자 자신있는 스윙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곰’들의 화려한 타격쇼 지원 사격에 나선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은 송승준과 권혁에 이어 세 번째 투수로 등판, 팀 리드를 지킨 뒤 돌아온 마무리 오승환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지난 13일 미국전과 16일 일본전 구원승에 이어 18일 대만전 세이브를 장식했던 윤석민은 이날 홀드까지 추가하며 대표팀의 확실한 ‘믿을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하며 속앓이를 했던 윤석민이 안정된 피칭으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에 반해 KIA에서 한숨을 먹고 있는 한기주는 계속된 난조로 난처한 입장에



에 처했다. 한기주는 오승환대신 대표팀 마무리로 마운드에 올랐다 경기마다 난타를 당했다. 지난 13일 자신의 첫 등판인 미국전에서 한기주는 첫 타자에게 솔로 홈런을 맞은 뒤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9회 6-7 역전의 빌미를 제공했다. 9회말 8-7로 승부가 뒤집히면서 간신히 패전투수를 면했지만 17일 승리의 한일전에서 다시 고전했다.

5-2로 3점의 여유가 있던 9회초 김경민 감독은 자신감을 살려주기 위해 한기주를 마운드에 올렸으나 첫 타자에게 3루타를 얻어맞은 후 3루수 김동주의 실책에 이은 2루타로 2경기 연속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감관당했다.

한기주는 18일 대만전에서 세 경기만에 첫 아웃카운트를 잡았지만 6회 말 다시 동점을 허용한 후 타선의 도움으로 곧바로 승부가 뒤집어지면서 속스러운 승리투수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